

현대정공, 교량전차 출고식 가져 ...

— 대전차 장애물, 협곡, 하천 등 극복으로 전차 전투력 향상



최대길이는 22미터로 하천 또는 장애물의 간격 20.5미터까지 가설이 가능하다.

교량전차는 전투중량 53톤으로 60톤급(Military Load Classification : MLC 66)의 전투차량이 통과할 수 있고 1200마력의 고성능 엔진 및 전자제어식 트랜스 미션을 장착하여 최고 65km/h의 속도로 야지 및 산악지형에서도 탁월한 기동력을 발휘할

국 방부와 현대정공(주)은 10월 19일 현대정공 창원공장에서 한국형 교량전차 출고식을 갖고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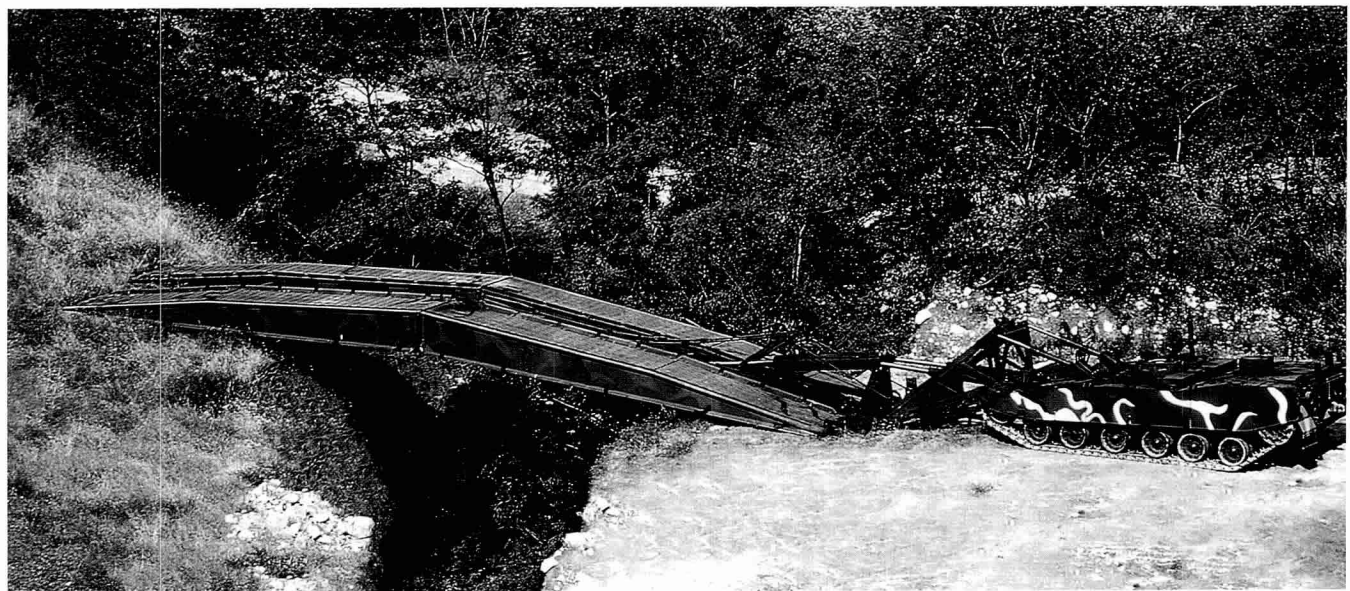
한국형 교량전차(K1 AVLB)는 실전 배치된 한국형 K1 전차가 대전차 장애물, 대화구, 파괴된 교량, 가파른 협곡 및 하천 등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형 K1 전차의 기본차체에 교량장치 부분을 체계 결합하여 연구개발한 장비이다.

전차장과 조종수, 승무원 2명이 교량전차 운용, 교량가설 및 회수 등 모든 작업을 수행하며, 교량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용군의 엄격한 운용시험과 기술자료의 규격 심의를 거쳐 한국형 교량전차를 생산하는 현대정공은 이미 K1 전차와 구난전차를 개발, 실전에 배치하여 軍전력화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교량전차의 교량조립체를 포함한 주요 핵심기능품을 국산화하여 성능과 가격면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장비성능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수출을 추진하여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5 종합군수지원 관리자 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 과학적, 경제적, 조직적 무기체계 관리로 비용절감 및 수명주기 연장



중 합군수지원 관리자 세미나가 10월 13일 경 남 창원 동남공단 전시장내 세미나실에서 尹鍾昊 국방부 제2차관보를 비롯 産·學·研·軍의 군수지원 관련 관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종합군수지원(Integrated Logistics Support : ILS)는 한 시스템의 수명주기동안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지원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문제를 통합한 것을 말한다.

尹 제2차관보는 혼시를 통해 “최근 소요 무기체계 획득방안이 해외구매 일변도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 생산 등으로 다변화 되고 획득원도 다양화 됨에 따라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종합군수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주장비 중심의 사고가 만연되어 있다. 운영유지비와 장비성능 분야도 궁극적으로 종합 군수지원에서 출발하므로 이분야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주장비 중심의 사고가 만연되어 있다. 운영유지비와 장비성능 분야도 궁극적으로 종합 군수지원에서 출발하므로 이분야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간화회 대표단 한국 방문

— 양국 방산협력 및 우호증진 위해 상호 방문

일 본 방위간화회는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7일의 일정으로 요코치 하루오 단장을 포함 28명의 방문단을 편성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지나해 한국방위산업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한 것에 답방 형식으로 내한한 이번 방문은 韓·日 양국 방산업계의 우호협력증진을 위해 1987년 부터 매년 상호방문으로 이루어져 왔다.

鄭秀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한 협력의 시대를 맞아 그동안 양국간에 이룩되어온 선린관계를 기초로 하여 방위산업 부문도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특히 韓·日 양국은 주로 미국과 제휴하여 기술도입 생산 또는 면허생산하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면

상호 이익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 방위간화회 방문단은 8박 9일 동안 국립묘지 참배와 판문점, 제3땅굴을 견학하고 삼성전자, 포항제철, 삼성항공, 현대정공 등을 방문하였다.

